





| 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금융위원회 | | 보 도 참 고 자 료 | | | |  금융감독원 | |
| | | 보도 | 배포 후 즉시 | | 배포 | 2017.12.7.(목) | |
| 책 임 자 |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80) | | | 담 당 자 | 김 영 근 사무관 (02-2100-2693) | | |
| | 금감원 회계제도실장 윤 동 인(02-3145-7750) | | | | 홍 순 간 회계심사1팀장 (02-3145-7725) | | |

제 목 : 이투데이 12.7일자 “금융위, 한국지엠 특별감리 검토 착수” 제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☐ 이투데이는 12.7일자 “금융위, 한국지엠 특별감리 검토 착수”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금융위원회가 2014년부터 대규모 손실과 철수설이 돌고 있는 한국지엠에 대해 특별감리를 검토하고 있다”,
 - “금융위는 국회의 요청과 함께 자동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리와 같은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”라고 보도

< 보도 참고 내용 >

- ☐ 국회 등에서 제기된 한국지엠의 매출원가 과대계상 의혹 등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해당 회사의 협조를 얻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음
- ☐ 추후 금감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감리 착수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임